

퍼니텍처를 통한 주거공간에서의 미니멀아트의 표현특성 구현 연구

A Study on the Embodying Expressive Characteristic of Minimal Art
in the Residential Space by the Furniture

주 저 자 : 심형준 (Shim, Hyung Joon)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간디자인학과 석사
과정

교 신 저 자 : 이재규 (Lee, Jae Kyu)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jagalit@hongik.ac.kr

Abstract

As the efficiency and functionality are no longer important values at spaces for people, by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changes in values, efficiency-oriented urban spaces are rapidly changing into experience-oriented spaces. However, the apartments, which occupy most of our residential spaces, still remain as a Standardized cuboid grid in the modern collective residential style. Compared to the commercial and cultural spaces which provide a rich spatial experience through various structures and formatives, residential spaces that created by combining the decorative symbols of furniture purchased for functions are relatively poor in terms of design. As a way to overcome the design limitations of standardized flat space, this study present the concept of a minimal art which provided a spatial experience by expanding a minimized object to the entire space.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a furniture that has a functionality along with a volume which the concept of objects can be applied, expression characteristics which can play a 'functional role' necessary for housing, and a 'design role' as a formative object at the same time to overcome the design limitation of residential space will be studied.

Keyword

Furniture(퍼니텍처), Minimal art(미니멀아트), Residential space(주거공간)

요약

기술의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로 사람들에게 효율성과 기능성이 더는 공간의 최우선 가치가 되지 못하면서 효율 중심의 도시 공간들은 경험 중심의 체험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공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는 아직도 근대 집합 주거 양식의 획일화된 직육면체 그리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구조와 조형성을 통해 풍부한 공간적 경험을 제공하는 상업, 문화공간과 비교하면, 기능을 위해 구매한 개별 가구들이 가진 장식적 기호들의 조합으로 연출되는 주거공간은 디자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주거공간의 조형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회화의 평면적 일루션에 반발하여 화이트큐브라는 고정된 공간 안에서 오브제의 조형성을 공간 전체로 확장하였던 미니멀아트의 오브제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니멀아트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볼륨과 구조를 가진 퍼니텍처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가구가 주거에 필요한 '기능적 역할'과 동시에, 공간으로 확장하는 '조형적 오브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조형적 특징을 도출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퍼니텍처의 이론적 고찰
- 2-2. 미니멀아트의 이론적 고찰

3. 퍼니텍처에서 구현되는 미니멀아트의 표현 특성과 조형적 특징

- 3-1. 미니멀아트의 표현특성과 조형적 특징
- 3-2. 퍼니텍처에서 구현되는 미니멀아트 오브제의 조형적 특징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간은 언제나 그 시대의 삶을 반영한다. 개인화와 경험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은 효율과 기능 중심의 근대 공간들을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의 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연스럽게 공간적 경험을 중시하는 현상학이 공간 디자인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대중의 니즈와 트렌드에 민감한 상업 및 문화공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의 공간들도 마케팅 관점의 브랜드 경험을 넘어 공간 전체를 관통하는 디자인 언어를 통한 브랜드 고유의 공간적 경험을 극대화하는 체험 중심의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최우선이며 불특정 다수의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켜야 하는 주거공간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근대 집합 주거의 규격화된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거주자는 가구에 필요한 기능과 감성을 채워야 하는데, 정형화된 공간의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디자인으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성 가구들은 '공간적 요소로서의 오브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장식된 가구'로 인식될 뿐이다. 이렇게 평면화된 공간들은 이미지로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고 대중들이 이를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홈 페니싱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주거공간을 평면화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정형화된 픽처레스크를 만들게 되면서, 근본적 변화 없이 사진의 장면을 연출하는 가구들의 조악한 기호들만이 단편적으로 삽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극소화된 오브제를 공간 전체로 확장해 공간적 체험을 제공했던 미니멀아트의 표현특성을, 가구의 기능과 미니멀아트의 오브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볼륨과 구조를 가진 페니텍처에 적용하여, 가구가 장식 중심의 획일화된 평면적 주거공간에서 주거에 필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고유의 디자인 기호를 공간 전체로 확장하여 풍부한 공간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조형적 특징을 파악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우선, 페니텍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건축에서 파생된 페니텍처가 장식 중심의 기성 가구들과 달리, 공간 차원의 조형성을 부여하고 직접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와 볼륨을 통해 순수예술의 오브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

다음은 미니멀아트의 배경 및 특징에 대한 고찰과 함께 선행연구 분석을 진행하여, 미니멀아트의 작품들이 극소화된 오브제만으로도 그 조형적 특징과 기호를 전시공간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을 획득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확장성을 위한 표현 특성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오브제의 형태, 구성, 배치 및 표현방법 등을 포괄하는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키워드들을 추출 후 재구성하여, 페니텍처 사례의 분석 기준이 될 수 있는 미니멀아트의 표현특성과 이를 구현하는 작품 속 오브제의 조형적 특징을 도출한다.

위에서 도출한 미니멀아트의 조형적 특징들을 기준으로 페니텍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미니멀아트의 표현 특성을 주거공간의 기능적 가구에서 구현하는데 요구되는 디자인 및 공간과의 관계구축에 관한 조형적 특징들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언한다.

2. 이론적 고찰

2-1. 페니텍처의 이론적 고찰

통상적으로 가구는 공간과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신체적 활동 지원 및 수납 등의 기능적인 일차적 역할과 심미적 만족감 제공, 공간의 프로그램 설정 등의 이차적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가구 시장에서 실용성보다 개인화된 라이프스타일이 더욱 중시되면서 감성적 기능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져 왔고, 기술의 발전으로 정형화된 구조와 형태의 탈피가 가능해지면서 공간과 가구에 대한 고찰된 틀은 빠르게 깨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나오게 된 가구(furniture)와 건축(architecture)의 합성어인 페니텍처(furniture)는 보편적이고 공식화된 단어는 아니지만 '공간적 가구'라는 개념으로 디자인사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공간적 가구의 역할은 모더니즘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건축의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건축의 아름다움을 건축물의 순수한 형태에서 찾고자 하였던 근대 건축가들에게 공간적 가구는 실내에 놓이는 가구의 수를 줄여 순수한 건축 공간을 보게 하는 조형적 방편으로, 그리고 쓸모없는 공간을 발생시키지 않는 합리적 가구로 받아들여졌다.¹⁾

1) 김용립, 구아쓰미 씨게일의 고정식 가구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4호,

이러한 기능과 건축 중심의 ‘공간적 가구’는 모더니즘 이후, 감성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 그리드를 파괴하고 다양성을 부여하는 도구로서 발전해 나갔다. 모더니즘의 엄격함과 균형을 중시하던 건축 중심의 디자인 시장은 산업 디자인의 부흥으로 나온 다양한 기술과 소재들로 인해 대중화가 진행되었다. 자연 및 금속재료가 가진 조형적, 구조적,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게 된 디자이너들은 자유로운 조형의 추구,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디자인,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등의 개념을 추구함으로써 제품 디자인이나 건축 요소의 일부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확장된 개념의 가구디자인을 탄생시켰다.²⁾

이렇게 건축적 조형을 추구하면서도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던 기능주의를 담은 공간적 가구가 구조체에서 독립된 공간 요소로 발전하면서, 고유의 구조와 볼륨을 통해 기존 가구의 조형적 단점은 보완하면서도 기능적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는 지금의 퍼니텍처라는 영역을 구축하였다.

2-2. 미니멀아트의 이론적 고찰

우리가 보편적으로 언급하는 미니멀리즘은 렉서리, 모던, 시크한 느낌을 표현하는 90년대 미국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공간 디자인 양식으로, 가구와 제품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까지 다양하게 확대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무채색, 기하학, 심플함 등의 표현 방식을 지칭한다.

하지만 재현과 표현주의에 반발하여 시작된 미니멀리즘은, 일루선과 주관을 극소화하고 실존에 집중하는 현상학 기반의 철학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정한 리얼리티를 찾으려는 미니멀리즘의 노력은 ‘실제로 체험하는 공간(real space)을 하나의 예술 세계로 제시하며 공간이라는 화두를 현대미술에서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했다. 큐비즘에서 제시된 공간은 2차원 평면에 머문 한계를 지녔으므로 체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해석의 대상이었다. 이것은 곧 실제 세계와 예술 세계 사이에 불일치적인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했다. 이에 반해 미니멀리즘에서는 3차원 공간 구조물과 같이 실제로 관찰자를 담아내는 공간적 환경 개념으로 예술 세계를 정의했다.³⁾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0, p.3

2) 김진우, 공간조형을 창출하는 가구디자인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26

3)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의 공간, 시공사, 1999, p.44-45

미니멀리즘의 오브제 개념은 철학에서부터 회화,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디자인에서의 오브제 개념은 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미니멀아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미니멀아트의 핵심은 작품의 조형과 특징이 공간을 채우지 않은 극소화된 오브제의 표현특성을 통해 공간 전체로 확장된다는 것인데, 형태, 구조, 규칙의 극단적 단순성을 추구함으로써 감상자의 시각이 작품의 전체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함과 동시에 작품 주위로 시선이 이동하여 전시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⁴⁾ 본 연구는 이러한 미니멀아트에서 활용하는 오브제의 표현특성과 조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해나간다.

3. 퍼니텍처에서 구현되는 미니멀아트의 표현특성과 조형적 특징

3-1. 미니멀아트의 표현특성과 조형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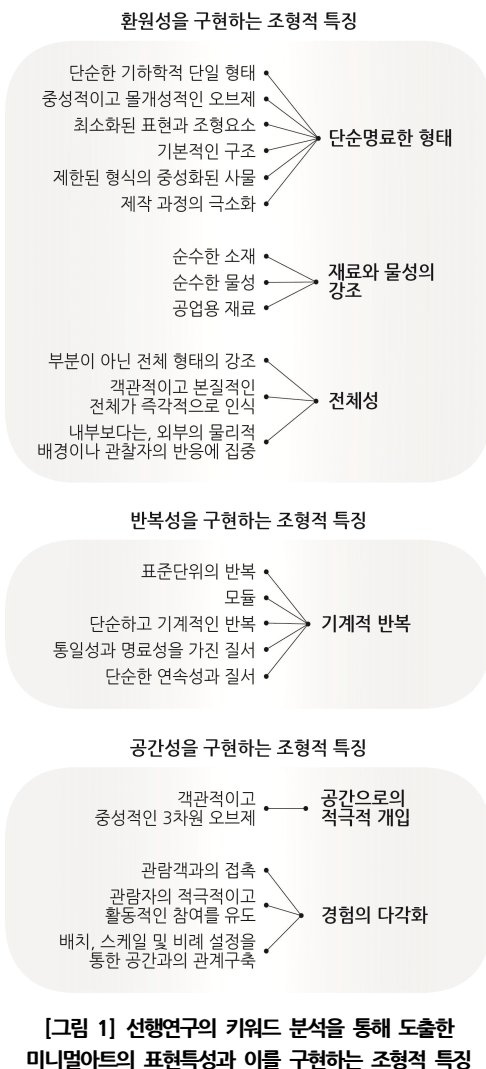
미니멀아트에서는 전시공간을 채우지 않은 채, 최소한의 오브제만으로 그 조형적 특징을 공간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식체계 및 시지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표현특성을 활용한다. 미니멀아트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미니멀아트의 오브제에서 구현되는 표현특성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표 1 참조)

[표 1] 미니멀아트의 표현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구명	표현특성
정충범 (2001)	현대건축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단순성 단일성
		반복성
		환경성
석미선 (2002)	미니멀리즘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단순성 명료성
		반복성
		사물성 순수성
김소연 (2010)	미니멀아트의 회화적 특성	단순화 물질화 단색화
		반복성
		공간성
김보근 (2021)	미니멀리즘의 특성을 적용한 주거공간 내부 이미지 표현 연구	단순성 환원성
		반복성
		환경성
류경화 (2021)	미니멀리즘 화예디자인의 표현과 특성에 관한 연구	단순성 단일성 환원성
		반복성
		확장성

4) 석미선, 미니멀리즘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10

표현특성은 연구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였지만, ‘평면적 회화에서 벗어나 비예술의 영역까지 환원된 오브제의 질서나 상징성이 확장된 작품 그 자체가 된 실존적 공간을 경험한다’라는 미니멀아트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작업 방식에서 도출된 결과이기에 중복되는 의미의 표현특성들을 환원성, 반복성, 공간성으로 압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이 3가지의 표현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활용한 조형적 특징들의 키워드들을 추출 후 재구성하여 각 표현특성을 구현하는데 요구되는 조형적 특징 6가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1 참조)



3-1-1. 단순명료한 형태

형태는 단순 명료할수록 형태를 통한 작가의 주관적 개입이나 예술적 표현을 최소화하여 대상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게 돕는다. 이렇게 환원된 작품은, 의도를 내포한 재현이나 기호를 제거하여 순수한 형태가 가진 본질을 공간의 강력한 단일 상징으로써 우리의 인식체계에 각인시킨다.

3-1-2. 재료와 물성의 강조

미니멀아트 작가 칼 안드레는 시각 및 촉각적 일련성을 제거하여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물질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돌, 청동, 점토 대신 철과 플라스틱 같은 산업재료를 사용했으며 예술적 조각 방식이 아닌 단순한 가공, 결합, 나열 등, 공업적 방식에 가까운 작업을 통해 소재의 물성 자체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환원 과정은 가장 원초적인 물질에 장식, 색, 무늬 등을 입히는 등의 의도를 가진 가공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관객들이 기존의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형태, 과정, 표현 등이 제거된 순수한 물질세계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3-1-3. 전체성

형태와 물성의 단순함 추구를 통해 내부의 주관적인 디테일이 아닌 지각되는 전체적인 형태를 강조하는 방식은, 관객들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 작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내부의 의미에서 외부와의 관계로 이동시켜 자연스럽게 작품, 관객, 전시공간 사이의 공간과 관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3-1-4. 기계적 반복

미니멀아트의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반복은 작품의 위계질서와 상관관계를 파괴하여 비관계적이고 비계층적인 동등한 질서를 형성한다. 즉각적이고 명료하게 파악되는 이 질서를 통해, 분리되어 있던 오브제들은 모듈과 모듈이 만드는 패턴으로 환원됨으로써 우리의 시선은 모듈의 반복이 만드는 독자적인 패턴과 경계를 따라 자연스럽게 공간 전체로 확장된다.

3-1-5. 공간으로의 적극적 개입

미니멀아트 오브제들은 주관적 터치 없이 비예술의 경계까지 환원되어 3차원의 공간에 놓일 뿐이지만, 이를 통해 공간 및 사용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그 어떤 평면적 회화보다 강렬하고 뚜렷한 시공간적 경험을 제공한다. 현존성과 지속성의 강화로 인해, 작품 자체보다는 작품을 둘러싼 상황과 관객의 역할이 강조되는 연극성을 강조한 것이 미니멀리즘이다.⁵⁾

3-1-6. 경험의 다각화

사용자의 움직임,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변성을 갖는 작품은 그 작품이 놓여있는 공간과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각에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 매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관람객들은 공간과 적극적으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작품과 직접 접촉하며 작품 그 자체가 된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3-2. 퍼니텍처에서 구현되는 미니멀아트 오브제의 조형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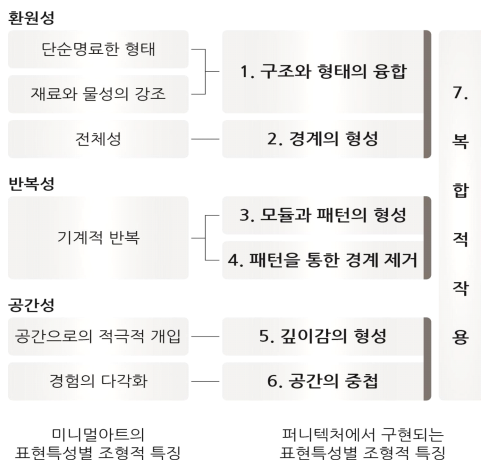
순수예술에서 구현되는 표현특성과 조형적 특징을 실제 주거공간의 가구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 퍼니텍처의 사례를 활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실효성을 갖는다.

퍼니텍처는 건축적 구조와 볼륨을 통해, 순수예술의 오브제와 유사한 형태와 구성으로 조형적 특징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여 표현특성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할 수 있는 동시에, 선반, 테이블, 소파, 등 주거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는 가구의 형태나 기능적 구조 또한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

이는 획일화 극복을 위해 모듈 가구나 퍼니텍처를 그대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가구 및 공간 연출의 유형이 될 특정 양식을 결과로써 제안하는 것이 아닌,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존 가구를 사용하더라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론을 도출하는 최적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으로 파악한 미니멀아트의 조형적 특징을 기준으로 퍼니텍처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공간으로의 확장성을 획득하기 위한 미니멀아트의 조형적 특징이 가구가 기능성을 위해 구축한 형태, 기능적 시스템, 구조 등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도출한다. (그림 2 참조)

본 분석에서 활용한 사례들은 퍼니텍처라는 단어를 공론화한 안나 유디나의 저서 '퍼니텍처'를 중심으로, 조형성이 없는 평면적 공간에서도 가구를 통해 공간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형 및 기동, 계단과 같은 건축적 요소가 없는 공간에서 구조체와 독립된 사례들을 활용하였다.



[그림 2] 퍼니텍처가 미니멀아트의 표현특성을 구현하는 방식

3-2-1. 구조와 형태의 융합

구조와 형태의 융합을 통해 가구의 전형으로 연상되는 일루션과 디자인 기호를 제거하면, 오브제의 조형과 물성을 부각하여 환원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⁶⁾



[그림 3] 가구의 전형을 만드는 구조와 형태의 환원

단, 순수예술의 오브제와 다르게, 제작각의 기성품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하는 주거에서의 환원 방식은 개별 기호의 직접 제거뿐만 아니라 기호들에 패턴을 만드는 반복성 및 상징성을 부여하는 공간성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오브제의 기호를 공간 전체의 기호로 전환하는 포괄적 환원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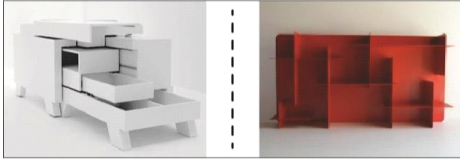
3-2-2. 경계의 형성

어떤 형태로든 대상에 경계가 형성되면, 계수탈트호 과에 의해 우리의 시각은 경계를 기준으로 전체를 최우선으로 파악한다. 왼쪽 이미지와 같은 복잡한 형태와 구조, 다리로 보이는 가구의 전형 등, 복수의 디자인

5) 장창훈, Donald Judd 작품에 나타난 장소성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 현상학적 상호작용을 中心으로,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43

6) 핀터레스트, (2022.06.14.). URL: <https://www.pinterest.co.kr/pin/537406168045377675/> <https://www.pinterest.co.kr/pin/157907530675513856/>

기호는 시선을 경계 내부에 가둬, 가구 간의 관계보다는 개별 가구의 기호 해석에 집중하도록 한다. 반면, 오른쪽과 같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환원된 오브제는 시선을 외부로 확장해 외부 공간 및 다른 오브제와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상징 및 모듈이 될 수 있다. (그림 4 참조)⁷⁾



[그림 4] 경계를 기준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시지각

3-2-3. 모듈과 패턴의 형성

무의미한 나열이 반복을 통해 규칙을 형성하면, 우리의 인식체계에서 나열은 모듈과 모듈의 반복이 만드는 패턴으로 치환된다. 패턴에 의해 모듈이 된 개별 요소들은 패턴을 통해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조형적 환원성을 획득하는데, 이는 가구뿐만 아니라 연출 소품 및 주거공간의 건축적 요소들의 형태와 구조, 소재, 컬러, 무늬와 같은 다양한 특징들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단, 왼쪽과 같이 반복이 규칙을 보이는 패턴을 만들지 못하면 표현특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단순한 조형에 그친다. (그림 5 참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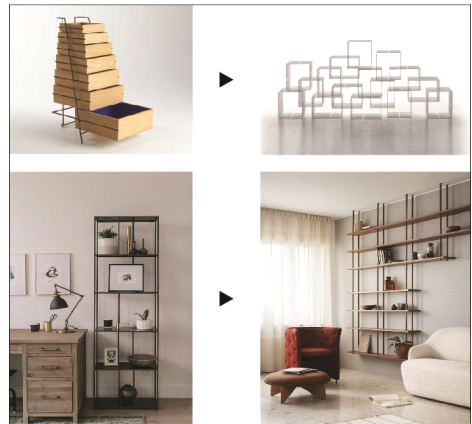


[그림 5]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패턴

3-2-4. 패턴을 통한 경계 제거

모듈, 패턴, 구조가 명확해도 왼쪽과 같이 반복이 특정 형태로 완성되면, 패턴보다 경계가 먼저 인지되어 모듈의 확장이 아닌 내부 디테일이 있는 전형적 형태가 연상되는 동시에, 형태에 맞게 패턴의 구조, 시스템 등이 인위적으로 조정되어 패턴이 약화된다.

반대로 관념 속에 구축된 가구의 형태, 구조, 시스템의 전형이 모듈의 반복으로 환원되면, 프레임은 기본 모듈로, 구조는 모듈이 만드는 패턴으로, 최종 형태는 모듈의 확장 과정으로 각각 치환되며, 이렇게 획득한 조형적 환원성에 의해 내부의 모듈과 패턴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는 시지각적으로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형태도 모듈과 패턴을 명확히 하면 환원성 획득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그림 6 참조)⁹⁾



[그림 6] 패턴에 의해 제거되는 가구의 전형

3-2-5. 깊이감의 형성

벽에 종속되었던 오브제가 독립하여 3차원의 경계를 갖는 순간, 우리의 시지각은 공간에 존재하는 깊이감을 지각하게 된다. 깊이감을 통해 배경과 분리된 오브제는, 평면적 객체 중 하나에서 장면의 입체적 주체가 되어 시지각적으로 강조된다. 주체와 객체를 구분해주는 3차원의 경계와 깊이감의 강력한 지각 효과는 원하는 대상을 공간의 상징으로 만들 수도, 불필요한 대상을

7) 핀터레스트, (2022.06.14.), URL: <https://www.pinterest.co.kr/pin/537406168042411936/>
아키프로덕트, (2022.06.14.), URL: https://www.archiproducts.com/en/news/different-and-different-the-design-therapy-will-soon-arrive-to-maison-et-objet_35120

8) 핀터레스트, (2022.06.14.), URL: <https://www.pinterest.co.kr/pin/537406168042411387/>
<https://www.pinterest.co.kr/pin/404549978997426007/>

9) 핀터레스트, (2022.06.14.), URL: <https://www.pinterest.co.kr/pin/537406168042404183/>
<https://www.pinterest.co.kr/pin/537406168045449697/>
<https://www.pinterest.co.kr/pin/537406168042473202/>
아키토닉, (2022.06.14.), URL: <https://www.architonic.com/en/product/sintesi-cross-unit/1095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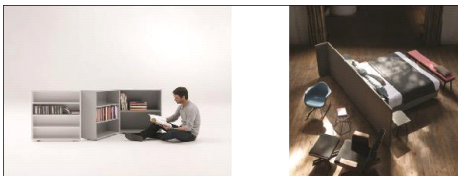
배경으로 평면화할 수도 있다. (그림 7 참조)¹⁰⁾



[그림 7] 3차원의 경계를 통해 공간의 상징이 되는 가구

3-2-6. 공간의 중첩

가구를 벽에 붙이는 일반적 배치에서는 가구의 기능을 위한 공간이 벽 주변에 머물게 되어 사용자와 공간 프로그램과의 접점은 최소화되어 깊이감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면화된 공간에서는 사용자의 공간 경험 역시 시각을 중심으로 최소화된다. 하지만 가구가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3차원의 경계와 깊이감이 형성됨과 동시에 건축 공간, 가구의 공간, 사용자의 공간 프로그램이 서로 중첩되어, 평면적 시각 중심의 공간 경험은 가구가 확장된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각화된 접점을 확보한다. (그림 8 참조)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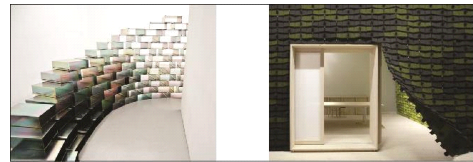
[그림 8] 사용자와 가구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공간의 상징이 되는 가구의 기능

단, 가구가 한정된 주거공간의 한가운데에서 면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기능화, 내부 공간 생성, 사용 접점의 다양화 등을 통한 공간적 밀도 및 효율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3-2-7. 복합적 작용

감상 목적의 순수예술이나 명확한 한두 가지 목적 및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상업공간과는 다르게, 제한

된 면적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가구를 통해 거주자를 위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주거공간에서는 환원성, 반복성, 공간성을 동시에 추구하거나 한 표현특성만을 집중하여 단독으로 구현하는 것은 오히려 모듈의 특정 조형이나 특징적 기능만을 강조하게 되어 주거공간의 기능적 활용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원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환원성, 반복성, 공간성의 균형 있는 활용을 통해, 공간의 효율과 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9 참조)¹²⁾



[그림 9] 증가하는 조형성 대비, 가능성이 저하되는 극단적인 표현특성의 추구

4. 결론

회화의 일루전에 반발하여 화이트큐브라는 고정된 공간 안에서 오브제의 조형성을 공간 전체로 확장하고자 했던 미니멀아트의 표현특성을 가구에 접목하여 획일화된 주거공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오브제의 조형성이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미니멀아트의 표현특성 3가지와 이를 구현하는 6가지의 조형적 특징을 도출하였고, 오브제의 조형성과 가구의 기능성을 동시에 가진 퍼니텍처를 분석의 매개체로, 미니멀아트 오브제의 표현특성을 가구에서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및 공간과의 관계구축에 관한 조형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확장성을 위한 단순성 추구는 공간 속 개별 요소들의 기호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기호를 우리의 인식체계를 지배할 수 있는 공간의 상징적인 단일 기호로 환원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환원성에 의한 직접적인 환원과 반복성 및 공간성을 통한 포괄적 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0) 핀터레스트. (2022.06.14.). URL: <https://www.pinterest.co.kr/pin/537406168042412729/>
<https://www.pinterest.co.kr/pin/537406168042414558/>

11) 핀터레스트. (2022.06.14.). URL: <https://www.pinterest.co.kr/pin/537406168042411901/>
<https://www.pinterest.co.kr/pin/537406168042412588/>

12) 핀터레스트. (2022.06.14.). URL: <https://www.pinterest.co.kr/pin/537406168042403689/>
<https://www.pinterest.co.kr/pin/537406168042414713/>

단, 확장성은 환원성, 반복성, 공간성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물로서, 표현특성들이 단독으로 발현되거나 이원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환원성은 구조와 형태의 융합을 통해 직접적으로 가구의 전형을 제거하거나 단순 명료한 경계를 형성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셋째, 가구를 포함한 주거공간의 개별 요소들이 가진 일부 특징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인지 가능한 패턴을 형성하면, 개별 요소들은 모듈로 환원되어 그 특징을 전체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반복성을 획득한다. 단, 반복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패턴이 인지되지 않기에, 패턴이 뚜렷해질 수 있도록 반복의 모듈을 늘리거나, 반대로 복잡한 반복 요소들을 압축하여 규칙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모듈, 패턴, 구조가 명확해도 반복이 특정 형태로 완성되면, 패턴보다 경계가 만드는 전형적 형태가 먼저 인지되므로, 모듈과 패턴이 만드는 조형을 활용해 전형적 형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구를 포함한 주거공간의 요소들이, 벽에 붙는 주거의 전형적인 배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간으로 개입하면, 3차원의 경계와 깊이감이 형성됨과 동시에, 건축, 가구, 사용자의 공간 프로그램이 서로 중첩되어 그 요소의 조형과 기능은 공간의 강력한 상징이 된다. 단, 한정된 주거공간에서 가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면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공간적 밀도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상업 이미지나 SNS 속 멋진 공간들이 우리의 주거공간에서 그대로 재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속 상품들은 디자인적으로 통일된 보조 오브제, 물성과 깊이감이 풍부한 조형적 배경과 긴밀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며 주인공으로서 의도와 방향성을 가진 최적의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반복성과 공간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간 일부로 환원된다. 또한, 판매 제품의 기능만을 보여주면 되기에, 사용자 및 다른 가구들과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 설치되는 순간, 움직이는 사용자에 의해 구도는 물론, 소품 및 배경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만들었던 패턴과 입체적 공간감은 소멸하고, 심미성 이전에 기능의 수행이 우선되면서 이미지를 만드는 ‘독립된 상징적 오브제’는 ‘벽에 붙어 기능하는 기구 중 하나’로 변질된다. 본연의

디자인적 기표는 남지만, 그 기표가 다양한 표현특성에 의한 공간으로의 확장성을 잃어버리면서, 사진 속에서 공간적 경험을 제공하던 입체적 오브제의 지위는 사라지는 것이다.

획일화 극복의 핵심은 무엇을 활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같은 가구를 활용하더라도, 공간 및 기타 오브제와 연계되지 않는 디자인 기호의 단편적 삽입을 통해 평면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과 가구를 모듈로써 공간 전체의 기호로 환원하거나, 패턴 및 상징성을 부여하는 등의 조형적 특징 적용으로 미니멀아트의 표현특성을 구현하여 각각의 가구가 가진 형태, 물성, 구조, 장식 등의 개별적인 디자인 기호를 공간 전체로 확장하는 공간 구축방식은 공간적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순수예술의 오브제와 퍼니텍처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한 큰 틀에서의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방법론이다. 실제 주거공간에서 기성품으로 패턴을 만들거나, 적극적인 배치 등을 통해 다양한 표현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 사례에 본 연구의 결과를 대입하여 그 실효성을 검토하고 응용 방법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데이비드 배츨러, 미니멀리즘, 열화당, 2003
2. 안나 유디나, 퍼니텍처, 시그마북스, 2015
3. 임기택, 현상학과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2014
4.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1999
5. 자크 뤼캉, 오늘의 건축을 규명하다, 시공문화사, 2019
6. 김용립, 구아쓰미 씨게일의 고정식 가구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4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0
7. 김보근, 미니멀리즘의 특성을 적용한 주거공간 내부 이미지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8. 김소연, 미니멀아트의 회화적 특성,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9. 김진우, 공간조형을 창출하는 가구디자인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0. 류경화, 미니멀리즘 화예디자인의 표현과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1. 석미선, 미니멀리즘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2. 장창훈, DONALD JUDD 작품에 나타난
장소성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 현상학적
상호작용을 中心으로,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3. 정충범, 현대건축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4. www.archiproducts.com
15. www.architonic.com
16. www.pinterest.com